

문화전당의 심장 ‘민평’ 문 열린다

〈민주평화교류원〉

공식 개관 D-7

옛 도청 회의실·별관
 착공 10년 만에 첫 개방
 미디어아트 30여점 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이 10년 만에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한다. 지난 2005년 문화전당 건립공사로 폐쇄됐던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등 6개 보존 공간)의 2개 공간(옛 전남도청 회의실, 별관)에서 기념 전시가 열리는 것이다. <관련 기사 3면>

문화부 소속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광주항쟁 유적 등을 리모델링하는 민주평화교류원(이하 민평)의 공사가 사실상 완료돼 오는 25일 문화전당 공식개관을 계기로 일부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고 밝혔다. 민평은 옛 도청본관·회의실·별관, 경찰청 본관·민원실, 상무관 등 6개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문화전당을 대표하는 공간인 민평은 지난 2008년 별관 보존-철거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지난해 신축건물(예술극장, 정보원, 창조원, 어린이문화원)이 완공될 때까지도 공사 중이었다. 지난 9월 문화전당 부분 개관 때도 민평은 출입금지 구역이었다.

문화전당 착공 이래 공식적으로 처음 개방되는 도청회의실(광주시 유형문화재 제6호)은 옛 모습을 고스란히 살려낸 것이 특징이다. 고풍스런 조명과 철제 장틀, 계단의 난간과 내부타일 등 모든 것을 복원·보완했다는 게 문화전당측의 설명이다.

이 공간에서는 아시아창작공간 네트워크 참여작가들이 광주항쟁의 정신과 의미를 예술로 승화한 미디어 아트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민평은 광주민주화 운동의 전 과정을 10개의 플랫폼으로 조명한 ‘열흘간의 나비떼’를 구현하기 위한 콘텐츠 구축작업이 완료되는 3월께 제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문화전당 공식 개관을 앞두고 민평을 제

광주지법, 시민 토크 콘서트 ▶6면



시간 속을 걷다-제일의류수선 ▶18면



옛 모습 살려 새단장한 민주평화교류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더불어 처음으로 새단장한 모습을 드러내는 옛 전남도청 회의실 내(위)외부. 노후 배선을 교체한 뒤 불을 밝힌 실내 조명등이 눈길을 끈다.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이 건물은 옛 모습을 고스란히 살려 전시 공간으로 단장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외한 나머지 4개 공간(창조원, 예술극장, 정보원, 어린이문화원)의 개관 콘텐츠(전시·공연, 운영프로그램) 확충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지난 9월 부분 개관 때 선보였던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에 애초 목표표 잡았던 콘텐츠를 보태는 작업이다.

문화전당 공식 개관식은 국내외 문화 관련 인사 700여명이 참석, 문화전당 예술극장 등지에서 열린다. 참석 주요 인사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중앙아시아 5개국 문화장관 등이다. 한편, 문화전당 개관식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돼 식전공연, 축사를 비롯해 아시아 문화를 주제로한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 참석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문화장관들은 광주에서 한-중앙아시아 문화장관 회의를 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진돗개 2마리 ... “토종견 최초로 군견 명 받았습다”

“파도’와 ‘용필’ 진돗개 최초의 군견으로 명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토종견인 진돗개가 처음으로 군견 테스트에 합격해 탐지견과 추적견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주인공은 제1야전군사령부 소속 군견인 ‘파도’(수컷·19개월)와 ‘용필’(수컷·23개월)이다.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해 자신을 돌보던 군견 병이 전역하면 통제가 어려워 군견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도와 용필은 지난 2월부터 군견 적합성 검토와 양성 훈련에 투입된 진돗개 35마리 중 적격심사를 통과, 진돗개 최초의 군견으로 등록됐다. <연필뉴스>



“호남정치 1번지 동구 사수 광주 8개 선거구 유지하라”

광주시민단체·지역 정치권 목소리 높여

국회 선거구 확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정치권들이 광주 국회의원 의석수(8석) 유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총연합회는 17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화의 성지이자 호남 정치의 심장부인 광주에서의 의석수 감소는 호남 정치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총연합회는 “지역에서 선거구 축소를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등 모두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선거구 획

정에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일부 광주시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도 참여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협의회도 18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지역구 의석수 유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기류로는 광주에서 ‘호남 정치 1번지’라 불리는 동구 선거구의 통·폐합이 유력하다. 동구 인구는 지난 말 현재 9만9641명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 하한선인 13만8000명에 턱없이 모자라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이 광주 8석을 유지하되 전남과 전북 등 호남에서 2석을, 영남에서 2석을 줄이는 최종 협상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 협상이 주목된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천정배 신당추진위 오늘 출범

30여명 참여 ... 김두관 전 지사·한상진 교수 축사

무소속 천정배(사진) 의원의 신당 창당 추진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한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창당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에 나선다.

이날 출범식에는 아권의 대표적 영남권 인사인 ‘리를 노무현’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안철수의 멘토’로 불리는 서울대 한상진 명예교수가 참석, 축사를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두관 전 지사는 천정배 신당에 대해 분열 프레임 보다는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 재편의 신호탄으로 이해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창당추진위원회에 이어 이달 중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1월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알려졌다. 또 조선대학교 의대 교수를 지낸 전종준 박사를 비롯,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포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정운찬 전 총리의 신당 합류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며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추진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창당추진위원회에 이어 이달 중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1월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The E-Class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11번지 / TEL 062226-0001

Mercedes-Benz